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우울할 때 마시는 술은 '毒藥'

(독약)

'알코올'은 자살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자 2명 중의 1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기에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까지 얹고 있다면 자살에 이를 확률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제력 떨어지고 쉽게 흥분... 공격적 성향 자살자 2명 중 1명은 술 취한 상태에서 시도

◇술은 자살의 매개체=우울증과 자살의 연관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개체가 바로 '알코올'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목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광주병원 이코올의 의존증으로 입원한 여성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의 30%(21명)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는 다사랑광주병원에 입원한 20명의 환자도 포함됐으며, 자살 시도율은 30% 수준으로 비슷했고, 자살에 이르기 직전까지 경험했던 사람도 90%에 달했다. 특히 환자의 상당수는 평소 우울증세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우울감을 견디기 위해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울한 상태에서의 알코올 섭취는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쉽게 흥분상태에 이르러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호르몬 변화기를 겪는 여성은 남성보다 자살 위험성이 더 높다. ◇우울증 환자의 '음주' 위험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가 2003년 39만5천457명에서 2007년 52만5천466명으로 5년 동안 33%나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 여성의 비율은 68%로 남성에 비해 2.3배 가량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우울증과 함께 동반되는 대표적 질환이 '알코올 사용장애'인데 우울증 환자가 일단 음주를 하게 되면 일반인보다 쉽게 '알코올 의존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10~15%인 알코올 관련 환자의 자살률이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모든 자살자의 4분의 1이 자살 직전 음주를 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우울증 환자가 복용하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은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긴장이나 불안 감소를 위한 효과가 있지만, 알코올과 결합하면 감정을 흥분시켜 충동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성 우울증 환자 특히 조심해야=우울증은 생화학적으로 체내에서 '세로토닌(serotonin)'과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사평가원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가 2003년 39만5천457명에서 2007년 52만5천466명으로 5년 동안 33%나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 여성의 비율은 68%로 남성에 비해 2.3배 가량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우울증과 함께 동반되는 대표적 질환이 '알코올 사용장애'인데 우울증 환자가 일단 음주를 하게 되면 일반인보다 쉽게 '알코올 의존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10~15%인 알코올 관련 환자의 자살률이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모든 자살자의 4분의 1이 자살 직전 음주를 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우울증 환자가 복용하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은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긴장이나 불안 감소를 위한 효과가 있지만, 알코올과 결합하면 감정을 흥분시켜 충동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성 우울증 환자 특히 조심해야=우울증은 생화학적으로 체내에서 '세로토닌(serotonin)'과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다사랑광주병원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자살 충동을 억제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입관(入棺)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망인(亡人) 역할을 맡아 직접 유서를 작성하고, 관에 들어가는 등 '죽음'을 간접체험함으로써 가정의 소중함과 삶의 희망을 되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사랑광주병원 제공>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중요 원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출산과 폐경, 갱년기 증상을 겪을 때는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시기를 술로 극복하려 한다면 알코올 중독에 이를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체내 수분이 적고 알코올 흡수가 잘되는 지방이 많아 같은 양을 마셔도 상대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알코올을 처리하는 분해효소도 남성의 4분의 1에 불과해 쉽게 취한 뒤 해독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될 수밖에 없다. 신재정 다사랑광주병원 원장은 "음주는 자제력을 잃게 만들어 '충동성'과 '공격성'을 띄게 한다"며 "특히 우울증 환자가 술을 마실 경우에는 자신에게 공격성을 보여 자살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다사랑광주병원>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빛고을 임플란트 심포지엄

빛고을 임플란트 연구회(회장 최재홍)는 지난 2일 조선대 치과대학에서 '빛고을 임플란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플란트 시술의 대중화를 위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철웅 광주 미르치과 원장 등 치과전문 의들이 임플란트 시술의 예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연안과, 광주 애육원생들과 가을 운동회

광주 이연안과는 지난달 26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광주애육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을운동회를 개최했다. 병원 내 봉사단체인 눈사람봉사단원들과 원생들이 참여한 이날 운동회에서는 광주시 주최 협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애육원합창단의 축하공연과 각종 경기가 펼쳐졌다. 눈사람봉사단은 올 3월부터 정기적으로 애육원을 찾아 후원하고 있다.



광주·전남혈액원 '여수 헌혈의 집' 개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정하광)은 지난달 29일 여수시 교동에 '여수 헌혈의 집'을 개소했다. 이번에 설치된 헌혈의 집에는 헌혈자 개인정보 보장을 위해 문헌공간을 확보했으며, PC와 TV, 휴대폰충전기, 음료자판기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전남대 치과병원 17일부터 본격 진료

'치의학 새물결' 국제 심포지엄 열어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원장 박상원)이 주최하는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병원 내 임상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치의학의 새물결'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유명 연구자들이 참가해 치의학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발표했다. 심포지엄 첫날에는 마코토 와타나베 교수의 '일본 토호쿠 대학 치의학부의 교육과 연구사례' 등 각각 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

럼이 소개되고 지역 치의학도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틀날 열린 '심미수복(치아 색과 조화된 재료를 사용하는 치료법)' 심포지엄에서는 최경규 경희대 교수의 '상아질 접착제의 최신 경향과 상아질 접착', 황인남 전남대 교수의 '수복 개념의 변화와 레진 온레이 수복' 등의 논문이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한편 전남대 부지에 지방 최대 규모로 지어진 전남대 치과병원 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고관절 수술 연령 높아졌다 남 73→74세 여 76→79세

조선대병원 최근 10년 조사

과거에 비해 고관절 수술 환자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과장 이상홍)는 지난 1996년부터 10년간 60세 이상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고관절 수술환자의 연령이 남자는 73→74세로, 여자는 76→79세로 높아졌다고 3일 밝혔다. 조대병원 정형외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관절 주위 골절환자의 특징 및 수술적 치료방법의 변화'라는 논문을 최근 열린 정형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 논문의 따르면 복합골절인 '불안정 골절'이 71%에서 76%로 증가했고, 고관절부위에서 측정된 평균 골밀도 검사결과 수치는 -3.30에서 심한 골다공증을 의미하는 -3.59로 나빠졌다. 또 고혈압이나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 마비증세를 보이는 노인은 정상적인 노인보다 대퇴 전장간 골절이나 대퇴 경부 골절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들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등 가벼운 충격에도 고관절 주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 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 가량이 사망하고 30%는 치료 후에

도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환자의 고관절 수술치료 방법은 과거의 고식적인 금속관 고정술에서 골수강내 고정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상홍 교수는 "고관절 골절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걷기운동으로 하체와 골반근육을 발달시켜야 한다"며 "사고 후에는 정확한 검사와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영화소개: 아내가 결혼했다, 바디 오브 라이즈, 그날의 책, 미쓰홍당무, 뱅크 잡, 굿바이, 맨데이트, 너를 잊지 않을거야, 공작부인, 화포, 이글아이

www.entrercinema.co.kr

영화소개: 아내가 결혼했다, 바디 오브 라이즈, 그날의 책, 미쓰홍당무, 뱅크 잡, 굿바이, 맨데이트, 너를 잊지 않을거야, 공작부인, 화포, 이글아이

www.joyce.co.kr

영화소개: 맘마미아, 굿바이, 그날의 책, 도코, 맨데이트, 아내가 결혼했다, 아내가 결혼했다, 폴라미터더본, 데스레이스, 뱅크 잡, 이글아이, 미쓰홍당무, 화포, 너를 잊지 않을거야, 바디 오브 라이즈, 이글아이

www.cinua.co.kr

영화소개: 뱅크 잡, 미쓰홍당무, 그날의 책, 폴라미터더본, 아내가 결혼했다, 바디 오브 라이즈, 맨데이트, 너를 잊지 않을거야, 이글아이, 아내가 결혼했다

www.hamcinema.co.kr

영화소개: 그 남자의 책 198쪽, 미쓰홍당무, 맨데이트, 도코, 화포, 맘마미아, 신기전, 아내가 결혼했다, 바디 오브 라이즈, 이글아이, 너를 잊지 않을거야

www.primuscinema.com

영화소개: 아내가 결혼했다, 아내가 결혼했다, 미쓰홍당무, 너를 잊지 않을거야, 이글아이, 맨데이트, 바디 오브 라이즈